

사연 있는 중고 물품...자원 순환·추억 소환 ‘돌고 도네’

광주시 동구 친환경자원센터 무인 ‘동글이 잡화점’ 사연 들여다보니

매대에 중고·업사이클링 상품 진열...구매 이유 남기고 결제
무료 나눔·구매자가 값 정하는 코너 등 다양...시민 참여 확대

“귀까지 따순 털모자! 시베리아 횡단열차 타고 온 아이예요. 2020년 시베리아 여행을 떠났던 딸을 위해 준비했던 털모자입니다.”
“몇년전 대형마트 이벤트 행사에서 몇 달 동안 쿠폰을 모아 어렵게 받은 중식도입니다. 동네 쿠폰 구걸도 하고 일부러 장을 보기도하고, 엄청 기대하고 받았는데 서랍장 신세로 전락한지 몇년째입니다. 이제는 보내줄때가 됐습니다.”

11일 광주시 동구 친환경자원순환센터에 열린 ‘모두의 동글이 잡화점’에는 독특한 설명이 포함된 ‘중고 물품’들이 진열돼 있었다.

직접 제작했던 티셔츠부터 재활용품을 활용해 만든 ‘업사이클링(폐기물 등을 예술·환경적 가치를 담아 새 제품으로 만드는 재활용 방식)’ 제품, 추억이 담긴 물건까지 저마다 사연을 갖고있지만 잘 쓰이지 않았던 광주시민들의 상품들이 매대에 올라 새로운 주인을 기다리고 있었다.

친환경자원순환센터는 지난 9일 광주시민들로부터 사연 담긴 물품을 모아 ‘모두의 동글이 잡화점’ 문을 열었다.

이곳은 단순히 중고물품을 사고파는 것을 넘어 삶의 흔적과 마음을 나누는 자리였다. 물건 그 자체만 재활용하는 것이 아닌, 물건에 얹힌 이야기까지 다시 순환시키겠다는 콘셉트였다.

상품들은 변질 우려가 있는 식품이나 화재 위험이 있는 전자제품 등은 제외됐으며, 가격도 개당 5000원 이하로 제한됐다.

각 상품들에는 판매자가 남겨 놓은 사연이 적혀 있어 어떤 역사(?)를 가졌는지 엿볼 수 있었다.

예술활동가 김옥진 작가는 딸을 위해 준비했던 털모자와 함께 주변 작가들로부터 선물받았지만 한번도 사용하지 못한 식기 등을 상품으로 내놓았다. “언젠가 쓰겠다”라며 쌓아두기보다 꼭 필요한 사람에게 보내주는 편이 낫겠다고 생각했다”는 바람도 덧붙였다.

광주환경운동연합 활동가 ‘도깨비’는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대응 활동을 알리기 위해 제작한 티셔츠와 플라스틱 뚜껑을 녹여 만든 수달

모양 치약짜개 등 업사이클링 생활용품을 진열했다. 판매 수익은 전액 환경 단체를 위한 후원금으로 쓰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광주 시민 ‘바람’ (별명)은 소금, 고춧가루를 담아두기 좋은 작은 옹기 그릇을 매대에 올렸다. 평소 주변 지인들이 하나 둘씩 챙겨주던 것을 거절하지 못해 마땅히 사용처가 없는데도 집에 갖다 놓은 물건이라고 한다. 그는 “한 소금 소금을 넣거나 할때 예쁜 옹기뚜껑을 열고 요리하는 내 모습을 상상하며 보관했는데, 보관만 2년 했다”며 “이번 매대가 비워지면 두번째는 ‘내가 사용해 애정했던 물건’을 주제로 다시 참여하고 싶다”며 나눔을 이어갈 뜻을 밝혔다.

잡화점은 상주 인력이나 계산대가 없는 ‘무인 운영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구매자는 마음에 드는 물건을 고른 뒤 판매자별 안내에 따라 계좌이체·현금·QR코드 등으로 결제하고, 구매 이유를 포스트잇에 적어 남기는 식이었다. 매대에는 무료나눔 물건과 구매자가 값을 정하는 코너, 고민을 적어 공유하는 공간까지 마련돼 있었다.

동구시니어클럽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센터에서 근무 중인 백인현(74) 씨는 “기존 사용하던 반자동 휴지통이 고장 나 센서 감지 휴지통을 1000원에 구매했는데 내게 꼭 필요했던 물건이었다”며 “누군가에게 쓰임을 다한 물건이 또 다른 이에게는 필요한 물건이 되는 자원 선순환을 느꼈다”고 말했다.

센터는 다음 달 31일까지 잡화점을 시범 운영하



11일 광주시 동구 친환경자원순환센터 내 ‘모두의 동글이 잡화점’을 찾은 한 시민이 독특한 설명이 포함된 ‘중고 물품’들을 살피고 있다.

고, 결과에 따라 매대 확대 등 보완에 나설 계획이다.

추민승 친환경자원순환센터 팀장은 “집에서 쓰지 않지만 공간을 차지하는 물건에 새로운 쓰임을 찾자는 취지로 잡화점 시범 운영을 시작했다”며 “물

건이 판매되면 추가 진열 여부를 판매자와 협의하고, 매대가 비지 않도록 판매자를 계속 모집하고 있다. 운영이 안정되면 매대 추가 설치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글·사진=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

강진군, 학폭 의혹 가수 황영웅 행사 초대 ‘강행’

21일 개막 청자축제 출연 확정

강진군이 ‘학폭폭력(학폭) 의혹’ 논란이 제기된 가수 황영웅의 제54회 강진청자축제 무대 출연을 그대로 추진하기로 확정했다.

논란 가능성에 대한 사전 검토를 충분히 거치지 않은채 해당 가수에 대한 섭외·계약을 진행하고, 이후 반대 민원이 잇따랐는데도 결국 출연 강행을 택한 것이다. 이에 지역사회에서는 “학폭 논란 이후 지자체가 나서서 활동 재개 무대를 마련해 준 모양새가 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11일 강진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 6일 축제추진위원회 회의, 내부 검토를 거친 결과 가수 황영웅의 강진청자축제 공연무대 출연을 확정기로 결정했다.

군은 황영웅의 학폭 의혹과 관련해 객관적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았으며, 단순히 사회적 논란이 제기됐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을 취소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군은 “피해 사실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연을 취소할 경우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며 “축제 준비 일정상 대체 섭외가 쉽지 않은 점, 계약 관계 정리 문제도 함께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출연여부를 결정지은만큼, 축제 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안전하게 준비해 지역민들을 위한 축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군은 오는 28일 축제 내 ‘청자의 소리 콘서트’ 코너에서 초대가수로 황영웅을 출연시키기로 했다가 반발 여론이 잇따르자 지난달 22일부터 출

연 여부에 대한 재검토를 시작했다.

논란이 이어지는 동안 소속사는 의혹을 부인하는 입장문을 냈다.

소속사는 지난달 27일 “유폐된 의혹 중 상당 부분은 악의적으로 편집되거나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일방적 주장”이라며 황영웅의 학교생활기록부 일부를 공개하고, “황영웅은 학창 시절 친구들 사이의 다툼이나 방황은 있었을지언정, 특정인을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보도된 바와 같은 가학적인 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을 명백히 밝힌다”고 전했다.

한편 황영웅은 2023년 경연 프로그램 출연 당시 학폭 의혹 등 논란이 불거지며 자진 하차한 바 있다. 한편 강진청자축제에는 오는 21일부터 3월 2일까지 강진 청자촌 일원에서 열린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여수 금오·남도서 별 보며 하룻밤

문체부 ‘섬-기업 상생 관광 사업’ 선정...체류형 관광 가능

여수 금오도 비렁길을 트레킹하고 섬 낚시를 즐기는 여행 프로그램과 사도·남도<사신>를 둘러보고 야영장에서 별을 보며 하룻밤을 즐기는 캠핑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11일 전남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2026 씨-너지 섬-기업 상생 관광 프로젝트’ 공모 사업으로 여수시의 금오도·남도 관광콘텐츠 개발 사업을 선정했다.

이번 사업은 전국 유인섬을 보유한 기초자치단체 4곳을 선정, 관광기업과 섬을 연계한 관광콘텐츠 개발·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는 것으로, 지속가능한 섬 관광 생태계를 조성해 생활인구를 늘리고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여수 남도는 공룡발자국을 활용, 관광객이 섬의 자연·문화유산을 찾아보고 체험하는 ‘보물지도형 미션투어’ 프로그램이 개발·운영된다. 유람선으로 인근 사도·추도를 둘러보는 유람선 투어, 돌담길을 산책하는 돌담길 투어 등도 개발된다. 섬에서 즐기는 ‘남도 카니발’, 야영장에서 진행되는 야간 캠핑 프로그램을 통해 머무는 체류형 관광 상품도 개발된다.



금오도의 경우 유명한 비렁길을 둘러보는 트레킹, 금오도 장지 마을에서 머물며 섬에서 나는 음식물로 내놓는 홈데이를 체험하고 섬 낚시를 즐기는 여행 상품이 만들어진다. 섬에 머무르며 일과 여행, 섬을 즐기는 워케이션 프로그램도 비수기 장기 체류 상품으로 운영된다.

전남도 오미경 관광과장은 “2026 전남 섬 방문의 해를 계기로 관광 기업들과 연계, 섬이 지닌 고유의 자연·문화·생활자원을 발굴해 선보임으로써 전남 섬이 머물고 싶고 살고 싶은 공간으로 인식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HD현대삼호 하청노동자 “노조할 권리 보장하라”

HD현대삼호가 사내하청업체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노조 임원을 말던 일부 노동자의 고용승계를 거부한 행위가 ‘부당 해고’라는 법원 판단이 내려진 것과 관련, 노조가 HD현대삼호와 하청업체 측에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는 12일 오후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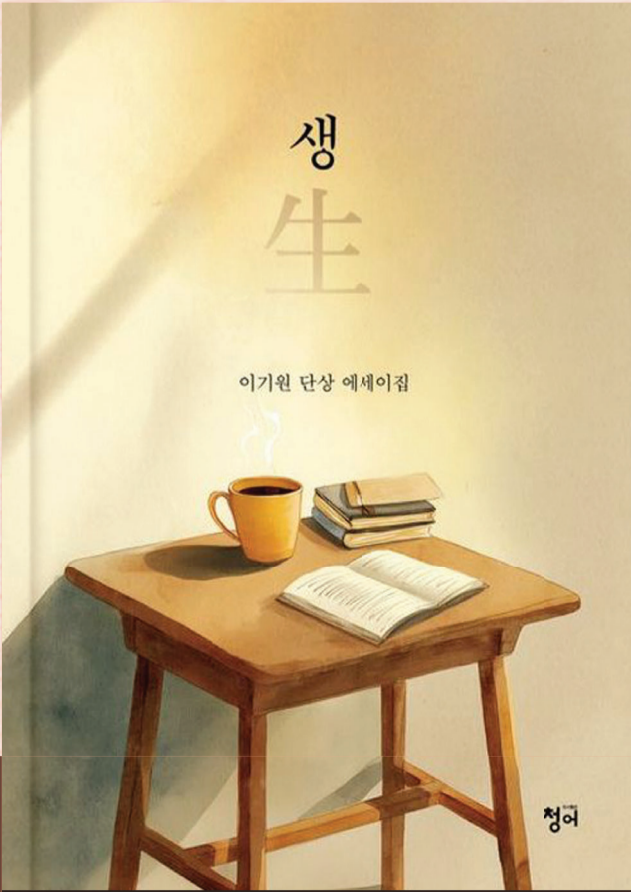
시 30분 고용노동부 목포지청 앞에서 이같은 취지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이번 기자회견은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5일 HD현대삼호 하청업체 HS이레(주)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내린 데 따라 열린다.

HS이레는 지난 2024년 6월 HD현대삼호의 새 하청업체로 들어오면서 노조 임원 2명에 대한 고용승계를 거부해 ‘표적 해고’ 논란에 휘말렸다.

이와 관련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2024년 노조 지회장과 부지회장 2명에 대한 고용승계 거부행위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내렸다. 이듬해 중앙노동위원회도 HS이레의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김진아 기자 jinggi@



이기원 단상에세이집

정어

312쪽 | 값 16,000원

生

누가 호박꽃도 꽃이냐고 묻길래 가장 실속 있는 꽃이라고 대답했다. 애호박은 개당 1천 원이 넘고, 황토빛으로 물들인 채 노년의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연로한 호박은 개당 5천 원이 넘는다. 마누라 꽃이기도 한 노년의 호박꽃은 비록 찬란하진 않지만 실속파의 아름다운 꽃이다.

사랑의 프러포즈와 축하나 애도를 표할 때도 꽃이 대변인 역할을 한다. 꽃은 여인과 계절과 색깔과 향기를 아우르며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못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식물이 아닐까?

—본문 「꽃」 중에서

태어날 생(生)이냐,
살아갈 생(生)이냐!!

영광의 사나이 이기원이
서민들의 삶과 애환을
오롯이 보듬고 달린다.

이기원

1957년에 태어났다. 국문학을 전공했고 육군대학을 졸업했다.
18년 동안 직업군인으로 복무했고 전역 후 30년 동안 사회생활을 하면서 세상을 배우고 있다.
『바람 나그네』, 『회전목마 인생』, 『밤벌레의 행복』, 『이방인』, 『생(生)』 등을 펴냈다.

인터넷 판매

교보문고, 영풍문고, 예스24, 인터파크, 알라딘

서점 판매

광주(충장서림, 영풍문고)
나주(종로서적), 목포(연산서적)
순천(중앙서점), 전주(영풍문고, 혁신문고)
익산(동아서점)